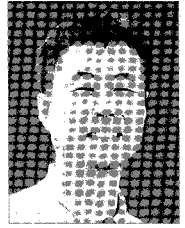


2011년도 계육산업 전망

2011년도 종계 · 부화업 전망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원종

지난해 말 큰 이슈가 되었던 L마트의 한 치킨상품의 판매가 중단되었다. 개장하자마자 대기표를 받아야 할 만큼 인기가 있었던 5,000원의 치킨 판매가격은 값싼 상품의 선택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저가판매로 인한 영세상인의 생존권 침해 등 큰 논란을 일으켰다. 비록 일주일 만에 판매가 중단되었지만 결국 치킨의 원가논란까지 이어져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가져 왔다.

이 시점에서 원가산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통업체 등의 대형업체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업계 전체의 노력이 절실하다. 사업장은 더 청결히 하고, 고객에게 친절하며, 더 좋은 품질과 맛으로 경쟁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상품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비록 조금 더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퇴근 후 회사 앞 치킨점에서 동료들과 즐겁게 맥주 한 잔을 하거나, 집안에서 편안하게 치킨을 배달시켜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에 더 만족을 느낀다면 소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나 소규모 치킨가게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은 업계 관계자 모두가 더욱 노력하여 닭고기가 서민의 먹거리로써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사랑 받는 식품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세계경제 전망

2010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각국의

정책기조가 재정확대에서 재정건전화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가능성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재정적자의 축소보다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2011년의 세계경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선진국의 고용위축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은 경기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밖에 실물경제의 성장 둔화,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등 아직은 세계경제의 향방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2. 국제유가

2010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배럴당 87달러까지 상승했으나,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확산으로 큰 폭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하반기에 주요국의 경기지표 개선과 세계경제의 회복기대감 등으로 90달러 가까이 상승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당분간 국제유가는 90달러 내외에서 유지될 전망이고, 2011년 국제유가는 원유수요가 공급규모를 소폭 상회하여 작년보다 5~6달러 상승한 8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국제 곡물가격

2010년 하반기부터 이상기후, 러시아의 곡물 수출제한, 달러약세로 인한 투기수요, 미

농무부(USDA)의 생산량 전망 하향조정 등 공급불안이 야기되어 곡물가격이 급등했다. 또한 2011년에 상반기에도 기상악화로 인한 옥수수 생산량 감소, 대체 에너지 개발, 신흥국 중심의 곡물수요 증가 등은 곡물가격의 상승을 압박할 것이다. 이에 따라 배합사료 원곡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양계농가들은 당분간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부터는 소맥 등의 곡물생산의 증가가 예상되는 터라 곡물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환율동향 및 닭고기 수입의 증가

현재 달러화의 가치는 미국 및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예상,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초저금리 유지와 유동성 정책을 지속하고, 수출증대를 위해 달러 약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2011년의 원화는 원화의 저평가와 경상수지 흑자 등과 맞물려 전반적인 강세가 예상된다. 물론 글로벌 금융불안과 한반도 리스크 등의 변수는 상존하고 있다.

2010년 닭고기 수입량은 11월까지 92,460톤(검역원 검역실적 기준)으로 전년의 58,466톤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상반기 닭고기 가격의 강세와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2011년에도 환율은 국내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 하나, 2010년 8월부터 시행된 배달용 닭고기 원산지 표시제, 2011년부터 포장유통 의무화 전면시행 등은 국내 업체에 긍정적이다. 비록 수입산과 가격차이가 있다 해도 국내업체들이 품질 좋은 닭고기를 생산·공급하여 수입산 닭고기와 차별화에 성공한다면 충분히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5. 종계의 생산성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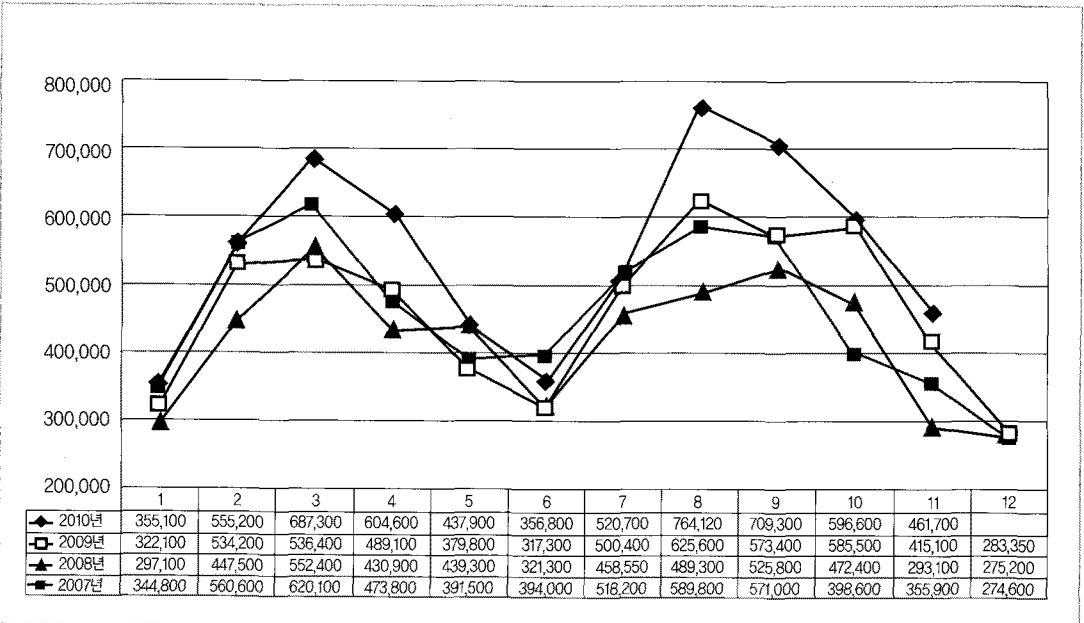
종계의 생산성 저하 문제는 필자를 비롯한 많은 양계인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하여 원인은 알지만 그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낙후된 농장 시설, 필드에 만연하는 질병,

종계 사육에 불리한 환경·기후 등이 주된 문제이다.

현재의 종계는 육성기부터 도태시점까지 관리자의 철저한 계획하에 체중 및 균일도, 질병 등이 컨트롤되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열악한 초기관리, 부족한 사육·급이면적, 체중관리의 어려움, 수탉관리, 차단방역의 실패 등 이런 환경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걱정보다는 희망을 얘기하고자 한다. 아직은 소수이나 일부 업체와 농장에서 시설·관리 등 조금씩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그 성과도 조금씩 보인다. 물론 한 걸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자금 등 어려운 점이

〈표 1〉 지난 4년간 종계분양 현황



많다. 그렇지만 당장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부터 시작하면 된다. 입추 전 계사온도는 적당인가, 사료섭취는 균일한가, 금주의 증체는 적당인가, 수탉은 정상적으로 교미하는가 등 등 한번 더 확인하고 계획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비록 시설이나 환경의 제약이 있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조금 더 닭을 생각하고, 세심하게 관리한다면 생산성의 회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밝은 새해를 준비해야 할 지금 이 순간 필자를 비롯한 양계인들은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에 다시

한번 전전공공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종플루, AI 등의 언급만으로도 소비자는 닭고기 선택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철새를 막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기위치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2010년 11월까지 이미 종계 600만수가 넘게 입식되었다. 생산성 저하와 계열사의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이다. 닭고기 소비가 증가하여 늘어날 공급량을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하기를 바라지만, 공급과잉이 걱정되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

<표 2> 실용계 병아리 생산잠재량 추정

